



# 한국러시아문학회보

ВЕСТНИК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NEWSLETTER

통권 제52호  
2017 June Vol.52

## Contents

권두언	1
논문발표회 및 학술대회 소식	2
학회지 발간	3
수상소식	3
신간소개	4
공지사항	10
회비납부	10

발행일 2017. 6. 30

발행처 한국러시아문학회

발행인 이규환

## 권두언

올해는 여러모로 우리 러시아어문학 전공자들에게 의미가 깊은 해인 듯합니다. 아관파천 이후 조선 왕조에서 대한제국으로 황제의 국가를 천명한지 2주갑이 되는 120주년, 볼셰비키 혁명 100주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그리고 2007년 6월 21일 푸틴 대통령의 명령으로 설립된 루스키 미르 재단 창립 10주년 등 공교롭게도 꽤나 많은 역사적 무개를 지



김진규 (고려대)

니는 사건들이 다시금 우리의 관심과 연구를 촉발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서로 공유하는 정서도 많은 반면에 아직까지는 서로를 전략적 동반자라고 공인하기에는 상호 충돌하는 갈등이 제법 많은 관계임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양국의 국민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상대방 국가와 문화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일정한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종종 목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러시아어와 문학과 문화와 예술이 좋아서 그저 이 길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묵묵히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쌓아온 우리 학회원들이 분명 그간의 한-러 관계에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숨은 노력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열정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있는지는, 아니 그저 우리사회에서 합당한 인정을 받고 있는지는 매번 아쉬운 마음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현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혼란스런 21세기의 아시아-태평양 시대에 함께 이웃하고 있는 한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우리의 주변 국가들이 처한 판도라 상자와도 같은 현실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희망이라는 씨앗을 보며 여전히 의지로 미래를 낙관하는 수밖에 없는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난 6월 21일에 모스크바 국립 크레믈린 공전에서 열린 루스키 미르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다지 학술적이지는 않은 경축행사 분위기의 컨퍼런스였지만, 2017년 현재 러시아가 지향하는 방향과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고 싶었기에 재단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센터의 대표 자격으로 흔쾌히 초청에 응하여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루스키 미르: 현재와 미래”라는 포괄적인 주제 하에 하루 동안 진행된 학술대회는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개의 특별 세션과 각국 참가자들의 사전 준비된 자유발언, 그리고 결의문 낭독과 의결의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 세션은 각각 재단 사무총장인 니코노프와 재단 이사장인 베르비츠까야가 주관하였고, 주제는 순서대로 “Русский мир: идентичность и консолидация”와 “Тексты Русского мира: классика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였습니다. 자유발언을 한 인사들은 각국의 루스키 미르 대표자들이었고, 발표문은 거의 모두 한목소리로 재단에 대한

감사와 루스키 미르의 이상과 지향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결의문도 역시 가장 상식적이고 원론적으로 타당한 호혜, 평등, 공존, 배려, 존중의 정신으로 루스키 미르를 지속하고, 확장하고, 이해시키고, 전달하자는 내용의 A4용지 2매 분량의 선언이자 제안이었습니다. 한 가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순간은 현재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이 193개국인데 루스키 미르의 적극적 역할로 플러스 3개국이 되어 196개국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농담 섞인 함의를 어필한 니꼬노프와 베르비즈까야의 지적이었습니다. 크림인민공화국,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196개 유엔 회원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 섞인 언급이 여러 참

가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찬 장소에서 만난 도네츠크에서 온 러시아어 여교사는 총탄과 포성이 일상이 된 접경지역 학교에서 근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평온한 시내의 집에서 매일 목숨을 걸다시피 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노라는 속 얘기를 진지하게 들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이 모든 현실을 수용하고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해야 할지 머리와 마음이 무척이나 복잡하고 뒤숭숭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 학회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여 사유의 단초를 선물해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방학 기간 내내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논문발표회/학술대회 소식

▶ 4월 15일에 제79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서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문학 분과는 김규중 회원(경북대)이 사회를 맡아주셨습니다. 김홍중 회원(중앙대)이 <필낙과 혁명: 교향곡으로 표현한 동란>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고, 서광진 회원(서울대)이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또한 김수환 회원(한국외대)의 <러시아 형식주의: 혁명적 문학이론의 기원> 발표에는 변현태 회원(서울대)이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어학 분과에서는 이주홍 회원(서울대)이 <러시아어 미래 시제와 양상, 인칭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주셨고, 사회는 홍택규 회원(한림대)이, 토론은 남혜현 회원(연세대)이 맡아 주셨습니다. 이날 논문 발표회를 마친 뒤 제3회 한국러시아문학회 논문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길윤미 회원(경북대)이 <러시아 언어와 문화에서 인텔리겐치아 개념에 관한 소고>의 학술적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지난 6월 24일에는 제80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문학 분과에서는 이기주 회원(안양대)의 <고골의 『결혼』과 부조리극> 발표가 있

었습니다. 백용식 회원(충북대)이 사회를, 이규환 회원(대구대)이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어학 분과에서는 권경준 회원(성균관대)이 <러시아어 대명사 중출구문의 통사적 파생>을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김용화 회원(충북대)이 사회를, 김형섭 회원(중앙대)이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논문 발표회에 이어서 특별세션으로 <러시아 혁명 백주년 기념 집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러시아문학회 혁명 기획연구 총서 발간에 부처’를 주제로 진행된 집담회에서 이강은 회원(경북대)이 좌장을 맡아주셨으며, 백용식 회원(충북대), 변현태 회원(서울대), 이득재 회원(대구가톨릭대), 이지연 회원(한국외대), 최진희 회원(안양대)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학회지 발간

▶ 2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56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제56집에는 문학, 언어학, 문화 분야의 논문 10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혁명 관련 논문으로 임혜영 회원(고려대)의 [파스테르나크와 1917년 혁명: 진정한 혁명과 변질된 혁명]이, 문학 분야에는 김규중 회원(경북대)의 [A.오스트로프스키의 희곡 『숲』의 쟁점들]을 비롯한 논문 6편이, 언어학 분야에는 김원희 회원(한국외대)의 [차용어의 형태적 적응에 대한 연구: 불가리아어와 터키어의 명사 차용을 중심으로]가, 문화 분야에는 서승현 회원(서강대)의 [사라진 여성해방: 신전통주의 러시아 사회에서 여성의 일과 삶의 변화] 외 1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5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57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제57집에는 문학, 문화 분야의 논문 6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혁명 관련 논문으로 김수환 회원(한국외대)의 [러시아

형식주의: 혁명적 문학이론의 기원] 외 2편이, 문학 분야에는 석영중 회원(고려대)의 [도스토예프스키와 랍시오 디비나: 듣기와 보기에 관한 고찰]을 비롯한 논문 2편이, 문화 분야에는 권기배 회원(중앙대), 이태형 회원(중앙대)의 [러시아와 중국의 영화정책 상관성 연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2017년 8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58집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 도착 예정일이 경과했음에도 학회지를 수령하지 못하신 회원은 편집부로 연락주시면 재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학회비를 미납하여 학회지를 우송받지 못한 회원께서는 미납된 학회비를 납부하시고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지에 변동이 있는 회원께서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karusist@naver.com)

## 수상소식

▶ **길윤미 회원(경북대), 제3회 한국러시아문학회 논문상 수상**  
길윤미 회원이 제3회 한국러시아문학회 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회원님의 [러시아 언어와 문화에서 인텔리겐치아 개념에 관한 소고](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55집)의 학술적 독창성과 우수성이 인정되어 논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은 4월 15일에 열린 제79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러시아문학회는 한 해 동안 발표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이듬해 정례학술논문발표회에서 논문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 신간소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출간된 책을 인터넷 교보문고 및 출판사 제공 서평과 함께 올립니다.)



**1. 『영화와 의미의 탐구 1,2』(미하일 암폴스키 지음, 김수환, 이현우, 최선 율김, 나남, 2017년 3월 15일 출간)**

1부는 영화에서의 언어, 즉 영화언어가 공간과 어떤 관계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글이다. 이어서 2부는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를 《범죄와 형벌》과 연결하며 언어체계의 바깥, 심지어는 전통적인 영화학적 맥락 외부에서 몽타주를 찾는다. 3부에서는 시간성의 문제를 다룬다. 영화를 둘러싼 담론에서 시간성의 문제는 역사 재현 혹은 역사기술의 문제를 부른다. 이는 암폴스키에게도 예외가 아닌데, 이 문제의식은 결국 소쿠로프 영화에 나타난 카이로스과 역사의 관계를 다룬 마지막 글 “불일치의 영화”로 수렴된다.



**2. 『정교신학 개론』(블라디미르 로스키 지음, 김영숙, 이용권, 최동규, 최윤희, 허선화, 홍대화 율김, 지식출판드는지식, 2017년 5월 31일 출간)**

『정교신학 개론』은 신앙 밖에서 신학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천명하는 블라디미르 로스키가 교리신학을 한 학기 동안 가르치면서 잡지에 기고한 글들을 모은 책으로, 신앙은 우선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신학 사상의 기초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신성과 인성을 지닌 그리스도의 의지와 관련된 순종에 대한 로스키의 묘사는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이 그 순종의 과정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파노라마처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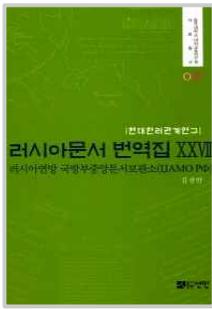
**3. 『문학교수, 영화 속으로 들어가다 6』(김규종 지음, 글누림, 2017년 5월 30일 출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저자 김규종 교수가 관심 있게 본 영화에 대한 글을 모은 『문학교수 영화 속으로 들어가다』 제5권. 연대순으로 배치하여 당시 어떤 영화가 상영되었는지, 어떤 내용과 문제를 제 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영화 속에서 다양한 세상과 인간을 읽을 수 있음은 물론, 영화가 우리 자신과 시대, 그리고 공간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4.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으로의 초대』(김상현, 오경환, 황정아, 이창남, 민가영, 이문영, 정연보, 홍양희, 박정미 지음,한양대학교 출판부, 2017년 1월 20일 출간)**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으로의 초대』는 크게 3부로 구성된 책이다. 제1부 트랜스내셔널 관점에서 본 역사와 문학, 제2부 트랜스내셔널 관점에서 본 지식·담론·실천(1), 제3부 트랜스내셔널 관점에서 본 지식·담론·실천(2)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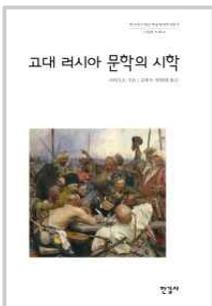
**5. 『현대러러관계연구 러시아문서 번역집 27』(김선안 지음, 선인, 2017년 2월 28일 출간)**

이 책은 러시아문서 번역집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러시아문서 번역집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6. 『유라시아지역은 어디로』(강봉구, 김영진, 박지원, 변현서, 성원용, 우준모, 이상준, 이영형 지음, 민속원, 2017년 4월 30일 출간)**

이 책은 유라시아지역 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유라시아지역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7. 『고대 러시아 문학의 시학』(리하초프 지음, 김희숙, 변현대 옮김, 한길사, 2017년 2월 28일 출간)**

『고대 러시아 문학의 시학』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학 연구자이자 지식인 리하초프의 주저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고대 러시아 문학의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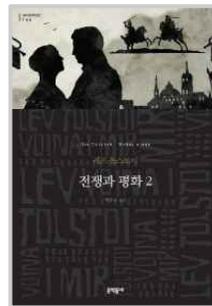
사와 그에 대한 문학적 평가뿐만 아니라 왜 고대 문학을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분석까지 시도한다. 특히 리하초프는 19세기에 러시아 문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이유를 11~17세기의 풍부한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 찾는다. 이는 러시아 문학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으로 이후 러시아 문학 연구의 신기원으로 자리 잡는다.



**8. 『변방에서 문화로』(남영호 지음, 라움, 2017년 5월 31일 출간)**

『변방에서 문화로』는 소련의 도시화와 도시 공간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주의의 이상이 현실에서 무엇을 의미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소련 정권 담당자들의 전망으로는 사회주의 도시는 가격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인간적 필요에 답하는 체계적 도시계획으로 건설되어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주조하는 문화적 공간이 될 터이었다. 이 책은 도시계획의 획일적 관철과 민족적 특징 사이의 충돌, 소련에서 상상된 문화의 특징, 사적 영역과 개인적 영역, 사회적 영역 사이의 관계 등을 통해 현실사회주의 생활의 한 단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9. 『전쟁과 평화 2』(레프 톨스토이 지음, 박형규 옮김, 문학동네, 2017년 4월 15일 출간)**

나폴레옹 침공과 조국전쟁 등의 굵직한 사건과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수많은 개별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과 죽음, 새로운 삶의 발견을

그린 일대 서사시적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 제2권. 1805년부터 1820년까지 15년에 걸친 러시아 역사의 결정적 시기를 재현한 소설로, 톨스토이의 사상과 철학이 남김없이 녹아 있는 방대하고 복합적인 작품이다. 악을 상징하는 나폴레옹에서 선을 상징하는 농민 병사 카타야예프까지 총 559명의 인물을 등장시켜 나폴레옹(영웅) 중심의 신화를 거부하고 소박한 민중의 관점에서 격동하는 러시아를 유기적인 한 폭의 거대한 그림으로 그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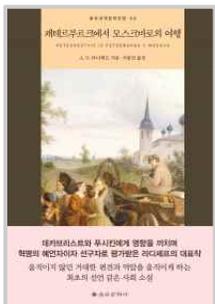
**10. 『쉽게 익히는 러시아어 발음과 억양』(박혜옥 지음, 명지출판사, 2017년 2월 17일 출간)**

본 교재는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하는 러시아어 학습자를 위한 러시아어 음성학 강의교재로도, 비전공자를 위한 러시아어 발음연습 교재로도 사용될 수 있다. 비전공 학습자는 처음부터 시작하여 발음연습을 하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2부에서 참고 보충하여 실용 목적으로 러시아어의 발음 연습만을 위하여 본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전공 학습자는 제2부의 이론적 강의부터 시작하여 중간 중간 발음연습을 병행하는 순서를 택하면 효율적으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11. 『지하로부터의 수기』(도스토예프스키 지음, 백준현 옮김, 작가와 비평, 2017년 2월 28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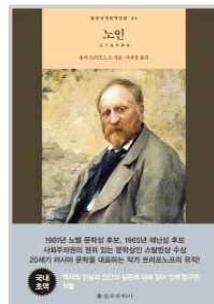
『지하로부터의 수기』는 도스토예프스키가 43세 되던 1864년에 자신의 형이 운영하던 문예지 《세기》의 3월과 4월호에 게재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흔히 그 이전 도스토예프스키 문학 세계의 종합이자 그 이후 문학 세계의 출발점이라고 해석된다.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저명한 비평가 모출스키는 이 작품을 그의 창작 활동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12.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의 여행』(알렉산드르 라디체프 지음, 서광진 옮김, 을유문화사, 2017년 3월 30일 출간)**

‘혁명의 예언자이자 선구자’로 평가받는 라디체프의 대표작 『페테르부

르크에서 모스크바로의 여행』이 을유문화사 세계문학전집 88 번째 작품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18세기 러시아 사회의 모순과 혁명 의식이 발아되는 상황을 생생히 담고 있는 역작으로, 문학의 사회적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 주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19세기의 위대한 망명 지식인이었던 게르첸은 이 작품을 ‘거대한 고발장’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또한 이 작품을 접한 예카테리나 2세는 작가에게 사형을 언도할 정도로 당시 러시아 사회를 뒤흔든 문제작이다.



**13. 『노인』(유리 트리포노프 지음, 서선정 옮김, 을유문화사, 2017년 5월 25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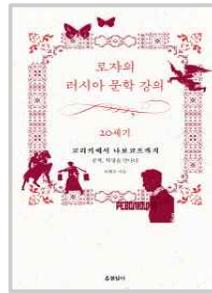
1981년 노벨 문학상 후보, 1965년 레닌상 후보, 1951년 스탈린상 수상 작가 유리 트리포노프의 유작 『노인』. 20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저자의 이 작품은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는 작품으로, 1919-1921년의 혁명과 내전의 시대를 자세하게 그리고 있다. 개인의 일상적 삶을 통해 일상과 이념, 역사와 인간, 정의와 윤리 등의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 인간의 섬세한 심리를 드러내는 미학적 문체가 절정을 이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4. 『유럽의 경제와 문화』(박영하, 정종태, 고팡욱, 엄구호, 신종락, 박희태, 김상현, 최정현 지음, 산과글, 2017년 2월 25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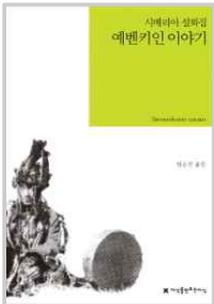
이 책은 브렉시트 후에 영국의 경제 동향 및 앞으로의 영국의 경제 전망과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반응에 대해서 다루었다. 또 유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최근 경제 상황도 구체적으로 다루었고 동시에 러시아에서 중국과 진

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제와 더불어 유럽의 문화에 대해서도 서술했다. 유럽의 지식문화는 아랍권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에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주목 받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러시아성'과 다차 문화를 서술했다.



**17. 『로자의 러시아 문학 강의: 20세기』(이현우 지음, 현암사, 2017년 4월 25일 출간)**

『로자의 러시아 문학 강의: 20세기』는 20세기 러시아 문학 강의로 '고리키에서 나보코프'까지 다루고 있다. 19세기가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체호프 등으로 이어지는 문학의 '황금시대'였다면, 20세기는 그러한 비옥한 토대가 혁명이란 파랑을 만날 때 어떻게 요동치는지를 설명한다.



**15. 『에벤키인 이야기』(미상 지음, 엄순천 옮김, 2017년 2월 25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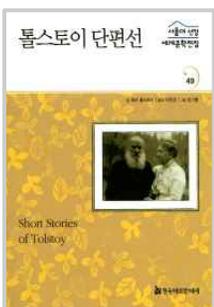
지식을만드는지식 시베리아 설화집 『에벤키인 이야기』.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민족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의미 있는

곳, 시베리아. 지역의 언어, 문화, 주변 민족과의 관계, 사회법칙, 생활, 정신세계, 전통 등이 녹아 있는 설화. 시베리아 소수 민족의 설화를 번역해 사라져 가는 그들의 문화를 역사 속에 남긴다.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시베리아 설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북유럽의 설화에 조금은 식상해 있는 독자들에게 멀고 먼 시베리아 오지로 떠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도와 주길 기대한다.



**18. 『민족정체성 문화 소통』(정경택, 이원근, 강길중, 장만호, 김겸섭, 주혁규, 이기상, 채병형, 오예, 리취 지음, 박이정, 2017년 2월 28일 출간)**

『민족정체성 문화 소통』은 다양한 학문분야를 배경으로 각자 나름의 시각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평가받기 시작하고 있는 유라시아의 정체를 파악하고자 구성한 책이다. 모두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경성대학교의 장만호, 김겸섭, 정경택, 이원근, 강길중, 주혁규 교수가 발표한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실었고, 2부에서는 대만 불광대학의 이기상 교수, 대만국립예술대학의 채병형 교수, 중국 사회과학원의 오예 교수, 공자연구원의 이취 교수의 글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역사, 문화, 예술을 주제로 한 논문을 수록하였다



**16. 『톨스토이 단편선』(레프 톨스토이 지음, 이은경 옮김, 한국헤르만혜세, 2017년 4월 1일 출간)**

『서울대 선정 세계문학전집』은 세계적인 대문호들의 위대한 문학 작품을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번역하고 유명 아동 문학가들이 다듬어 완성시켰다. 교과서 수록 작품은 물론 주요 대학과 기관 등에서 추천한 작품을 폭넓게 만날 수 있어 의미가 있다. 작품 외에도 작가의 생애와 관련 화보 등 사진 자료를 수록해 깊이를 더했다. 권서와 권말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해설을 제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19. 『외국 국어교과서로 창의적 문화읽기』(신지숙, 이종한, 한복희, 정막래 지음, 제이앤씨, 2017년 2월 23일 출간)**

『외국 국어교과서로 창의적 문화읽기』는 일본, 중국, 독일, 러시아의 초등,

중등 국어교과서를 텍스트로 문학작품의 문화 읽기를 시도하되 수동적 읽기가 아니라 창의적 읽기를 유도한다. 각국의 국어교과서를 텍스트로 하는 이유는 교과서에는 그 나라의 정체성과 문화를 대변하는 엄선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어 해당 국가의 문화전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에 매우 유효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학작품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방법을 구사하여 창의적 읽기가 가능한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20. 『안드로메다 성운』(이반 예프레모프 지음, 정보라 옮김, 아작, 2017년 2월 25일 출간)

20세기 소련을 대표하는 SF 작가이자, 현대 러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유토피아 작품들을 발표하며 문학적, 대중적으로 큰 성취를 이룬 이반 예프레모프의 SF소설 『안드로메다 성운』. 이 작품은 저자의 대표작이자 현대 러시아 유토피아 소설의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토피아 소설로서 상당히 특이한 이 작품은 저자 스스로 설명했듯이 유토피아라는 여정이 아니라 유토피아가 이미 이루어진 사회에서 그 안에서 태어나 자란 내부인의 시선으로 이상 사회를 살펴본다.



21. 『외투』(니콜라이 고골 지음, 조주관 옮김, 민음사, 2017년 6월 30일 출간)

“러시아의 모든 작가는 고골의 「외투」로부터 나왔다.”(도스토예프스키) 기상천외한 불세출의 이야기꾼 고골의 진면목을 살필 수 있는 세 가지 이야기 [외투]. 아까 아까예비치는 미래의 외투에 대한 끝없는 이상을 머릿속에 그려 보며 정신적인 포만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때부터 그 자신의 존재가 보다 완전해진 것 같았고, 마치 결혼한 것 같기도 하였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았다. — 「외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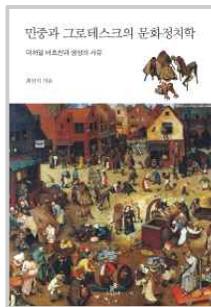
22. 『미메시스, 시뮬레이션, 상상력』(이윤석, 김장환, 양석원, 조주관, 선우환, 전동열 지음,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7년 5월 30일 출간)

21세기 연세 인문학 총서 제5권 『미메시스, 시뮬레이션, 상상력』. 이 책은 춘향전 연구자들의 상상력, 《태평광기》의 편찬과 기환의 세계, 역사의 재현, 재현의 역사·아우에르바흐의 《미메시스》 등 인문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3. 『알렉산드르 블로크』(최종술 지음, 열린책들, 2017년 2월 15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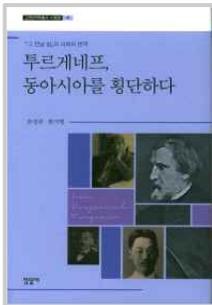
러시아 상징주의의 대표적 시인 알렉산드르 블로크의 시인론이 출간되었다. 오랜 시간 알렉산드르 블로크를 연구해 온 저자 최종술 교수는 『알렉산드르 블로크』를 통해 블로크의 시가 대중 인문 교양의 대상으로 소개되고, 그럼으로써 러시아 시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길 바란다. 러시아 문학 연구에 천착해 온 저자에게 시인 블로크는 [내 러시아 문학의 갈릴리 고향이다. 저자는 블로크의 시가 러시아와 러시아 시의 세계로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이라고 설명한다.



24. 『민중과 그로테스크의 문화정치학』(최진석 지음, 그린비, 2017년 5월 30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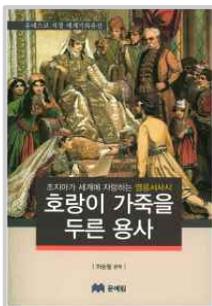
『민중과 그로테스크의 문화정치학』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바흐친의 저술에 나타난 문화 동력학의 문제들」을 저본으로 삼아 수정·보완한 것으로, 바흐친과 그의

사상을 재조명한다. 문화란 ‘이념과 사상 및 물질생활의 공유’라는 사전적 정의와 달리 그렇게 성립된 문화의 경계를 스스로 내파하는 힘이며, 문화의 역동성은 그 힘을 이론적으로 간취할 때 유의미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이 책의 대략적인 내용으로, 저자는 문화들 간의 충돌과 이행, 변이를 ‘생성력’이라는 관점에서 이론화했다.



**25. 『트르케네프, 동아시아를 횡단하다』(손성준, 한지형 지음, 점필재, 2017년 4월 27일 출간)**

본 저서는 트르케네프의 장편소설 『그 전날 밤』이 러시아와 일본의 극작가에 의해 각기 다른 연극용 각본으로 각색되는 양상과, 그중 일본판이 식민지 시기 조선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용되는가를 고찰한 것이다. 본 저서의 의의는 『그 전날 밤』이라는 텍스트를 ‘근대의 고전’으로 재발견한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세계문학으로서의 『그 전날 밤』이 갖는 문제성과 한국문학사에서의 역사적 위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본 저서는 박제되어 있던 ‘식민지 고전’을 재의미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26. 『호랑이 가족을 두른 용사』(쇼타 루스타벨리 지음, 허승철 옮김, 문예리프, 2017년 6월 10일 출간)**

『호랑이 가족을 두른 용사』는 조지 아가 세계에 자랑하는 영웅 서사시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랍인들의 왕 로스테반의 이야기부터 로스테반왕과 압탄딜이 사냥에 나선 이야기, 아랍의 왕이 호랑이 가족을 두른 용사를 만난 이야기 등에 대해 수록하고 있다.



**27. 『코자크와 우크라이나의 역사』(미하일로 흐루셴스키 지음, 허승철 옮김, 2017년 6월 10일 출간)**

『코자크와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유라시아 국가 역사 문화 탐방 시리즈 제4권으로 코자크와 우크라이나의 국가생활 이전 시기, 키예프공국 시대, 폴란드-리투아니아 지배 시대, 코자크 시대, 코자크와 우크라이나 자치의 종결, 우크라이나의 소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28. 『비즈니스 러시아어』(허승철 지음, 문예리프, 2017년 2월 16일 출간)**

『비즈니스 러시아어』는 러시아 관련 실무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활용도 높은 실용적인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초 문법을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꾸몄고, 개인적인 교류에 필요한 내용에 더해 특히 업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다.



**29. 『백년의 매혹』(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엮음, 민속원, 2017년 4월 30일 출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백년의 매혹』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근대문학과 러시아문학의 조우, 한국 근대지식인의 눈으로 본 소비에트 러시아와 러시아문학의 한국적 수용과 변용의 양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 공지사항

### ▶ 『러시아어문학논집』 제58집 투고 안내

2017년 8월 25일 발간예정인 『러시아어문학논집』 제58집의 제출 마감일은 2017년 7월 15일입니다. 발간 후 회비를 납부한 회원님들께 발송될 예정입니다.

『러시아어문학논집』에 게재할 원고를 보내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 1402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37번길 22 안양대학교  
러시아어과 이기주 교수 연구실 내 한국러시아문학회 편집부  
rusistika@hanmail.net **계좌번호: 농협 302-3720-9266-81 이기주**

### ▶ <평생 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

존경하는 학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의 지속가능성을 공고히 하고 학회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기한은 14기 회장단의 임기 말인 2017년 12월말까지입니다.

부디 학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회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아래에 제시된 회비 납부 현황을 참조해주시시오.

## 회비납부

### ▶ 회비 납부 현황

2017년 6월 30일 현재 학회비 납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내주신 학회비는 엄격하고 꼼꼼하게 관리되어 학회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 회비 납부를 하였으나 아래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karusist@naver.com](mailto:karusist@naver.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 ▲ 특별회비 출연해 주신 분 (2016~2017)

이규환 회장 2,000,000원  
정명자 전 회장 1,000,000원  
최 선 전 회장 3,000,000원

\* 특별회비를 후원해 주신 이규환, 정명자, 최 선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회비는 학회발전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 특별회비 출연해 주신 분 (2009~)

이강은 전 회장	2,000,000원 (2015)
조주관 전 회장	2,000,000원 (2015)
경북대 토대사업팀(연구책임자 김정일)	500,000원 (2015)
전명선 전 회장	1,000,000원 (2014)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2014)
변현태 전 부회장	1,000,000원 (2014)
김정일 부회장	1,000,000원 (2014)
조주관 전 회장	500,000원 (2013)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2012)
석영중 전 회장	1,000,000원 (2011)
열린책들	2,900,000원 (2010)
최성호 전 회장	1,000,000원 (2009)

▲ 평생회비 한 번 더 내주신 분(2017년 6월 30일 현재)

심성보(50만 원), 윤영순(50만 원), 이명현(30만 원), 이항재(50만 원) (이상 4인)

▲ 평생회비 완납(1997년~2017년 6월 30일 현재)

고영랑, 권경준, 김경태, 김규중, 김선명, 김선안, 김세일, 김용화, 김정아, 김정일, 김진규, 김진영, 김철균, 김혜란, 김희숙, 문석우, 박선영, 박재만, 박종소, 박현섭, 박현아, 박형규, 박혜경, 박혜옥, 백경희, 백승무, 백용식, 백준현, 변현태, 서상범, 석영중, 송인필, 심민자, 심성보, 심지은, 안병용, 안병팔, 안혁, 오원교, 오종우, 유승만, 윤영순, 이강은, 이규환, 이기용, 이기주, 이남경, 이대우, 이득재, 이명현, 이영의, 이장욱, 이재혁, 이준형, 이지연, 이항재, 이현숙, 이형숙, 전명선, 전병국, 전정옥, 전지용, 정명자, 정보라, 조미경, 조유선, 조주관, 조혜경, 차지원, 천호강, 최건영, 최병근, 최선, 최성호, 최정현, 최종술, 최진석, 최진희, 한예경, 허승철, 허효영, 홍대화, 홍순미, 홍지인 (이상 84인)

▲ 평생회비 부분납(2017년 6월 30일 현재)

김민아, 민경현, 서선정, 윤새라, 이수현(이상 10만 원), 김홍중, 김태욱, 정영주, 홍택규(이상 15만 원), 안지영(20만 원), 김상현

(25만 원) (이상 11인)

▲ 연회비 납부(2017년 6월 30일 현재)

임혜영 (이상 1인)

(4월 15일에 납부해주신 분의 성함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4월 15일에 연회비를 납부하신 분께서는 karusist@nave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회비 납부 안내

2017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아래 계좌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입회비는 2만원이며, 정회원의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생회비는 3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전임교원 연회비: 5만원

▲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 전임교원 평생회비: 50만원

▲ 비전임교원 평생회비: 30만원

\* 입금하실 계좌번호는 **외환은행 620-251567-493 이규환**입니다. 입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성함과 입금 내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연회비, 홍길동평생회비)

한 국 러 시 아 문 학 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02856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108 고려대학교 청산MK문화관 503호 러시아CIS연구소 내 한국러시아문학회 사무국

TEL: (02) 3290-1641 학회 홈페이지: www.russian.or.kr